

개관 20주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



이중섭의 은지화

북경창작센터 등 오픈...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

'진(進). 통(通)'전 '두 개의 모더니즘'전 진행

내일 기념식·학술대회... 북경 금일미술관 교류 추진

명품전시·미술교양강좌... 시민과 함께 한 20년

지난 1992년 8월 광주주예회관 내 문을 열었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지역 공립미술관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개관한 미술관이다. 지난 2007년 현재의 종외공원으로 이전한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시. 백남준·김아타·권오상·고근호·이이남·손봉채·세오·홍성담·강운 등 30여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주중 오후 3시에는 도슨트가 전시 설명을 진행하며 주말에는 문화해설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인상과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 '요셉보이스'전 등 다양한 전시들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났다. 시립미술관이 자랑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레지던시(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이다. 현재 창작스튜디오를 거쳐 간 미술인만 100여명에 달한다.



박수근 작 '귀로'

12일 오후 2시 2층 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열린다. 김영호(중앙대) 교수의 '개관 20주년 이 갖는 의미와 발전 방안' 김복기(아트인 컬렉티브)씨의 '하정웅 컬렉션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오광수(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영철(아시아문화개발원장), 이규용(전남대 교수), 조인호(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씨 등이 질의자로 나선다.

전국 국립미술관 중 처음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립미술관은 팔각정, 양산동 스튜디오에 이어 지난 2009년에는 중국에 베이징 창작센터를 오픈,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중외공원 본관과 함께 광주 상록본관, 금남로 본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은 또 지난 2008년 지역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인사동에 분관 '갤러리 라이트'를 오픈했다. 현재 인사동에서 시간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으로 분관을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올해 안에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 있다.

9월에는 올해 한·중 수교 20년을 기념해 중국 금일미술관과 양국을 오가며 동시에 교류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술관은 지역사회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미술관과 인문학 강좌 등 시민대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연 100여차례 이상 열리고 있으며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립미술관은 개관 기념으로 특별전 '두 개의 모더니즘'전과 '진(進). 통(通)-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전을 오는 8월 19일까지 개최하며 기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두 개의 모더니즘'전은 한국 모더니즘의 역사를 구성하고 추상 회화로 나누어 살펴보는 전시로 '자연, 순수의 갈망', '고향, 한국미의 추구', '새로움의 추구'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작가는 이중섭·박수근·장욱진·양수아·전혁립 등 모두 79명이다. 특별전으로 김환기·오지호전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4시40분 부터는 본관 1층 로비에서 특별전 참여작가인 김광철씨의 퍼포먼스 'Feel the paper'가 진행되며 개관 기념식과 특별전 개막식이 이어진다.

중외공원 시대를 맞으며 시립미술관은 대형 전시들을 선보였다.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키스 해링'전,

또 하나의 특별전인 '진(進). 통(通)-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전은 90년대 이후 한국 현대 미술의 특징을 '일상의 변용', '테크놀로지의 활용', '타자의 시선', '개념적 발상'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본 전



광주시립미술관.

한국발레협회 광주·전남지부장 박경숙씨 취임

“교사워크숍·무용치료·마임교실 운영”

지난 2001년 창립된 (사)한국발레협회 광주·전남지부는 1987년 출발한 한국발레협회(회장 박인자)의 유일한 전국 지부다. 오랫동안 '무향(舞鄕)'이라는 명성을 이어 온 광주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무용단이 발레단으로 구성돼 있는 등 발레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터라, 지부 개설이 가능했다.

워크숍을 비롯해 마스터클래스, 마임교실, 메소드 교육, 무용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발레협회는 발레 뿐 아니라 현대무용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요즘에는 컨템포러리 발레가 많이 공연되는 등 현대무용과 발레의 장르별 차이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아 현대무용과 발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화여대 무용과를 거쳐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를 역임하고 영국왕립무용아카데미 디플로마 과정을 마친 박 지회장은 광주시립무용단장을 맡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한양대 무용과 박사과정을 마친 후 지난 2007년부터 광주여대 무용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지부 창립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경숙(광주여대 교수·그린발레단 예술감독)씨가 최근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했다. 오랫동안 임명자세가 많아 고생해왔던 자리다. '신임 이사 등 모두 25명의 이사와 집행부들이 다들 의욕이 넘쳐 있어 새로 무거운 자리를 맡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콩쿠르 개최 등 기존 행사 뿐 아니라 특히 실기와 이론이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 지회장은 이를 위해 유능한 전문가를 초청, 교수법 세미나와 교사

전국연극제, 더위만큼 열기 '후끈'

지난 7일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된 제 30회 전국연극제가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지난 9일 전국연극제 부대 행사로 열린 극단 '필통'의 '뽀새'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금까지 부산·울산·전남·충남 대표팀이 경연을 마쳤으며 11일에는 경남 대표 극단 '예도'의 '선녀씨 이야기'(빛고를 시민문화관, 오후 4시·7시30분)가 공연된다.

14일 광주극단 까치놀, '꿈꾸는 해바라기' 무대에

지금까지 15년만에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돌아온 아들 중우가 죽은 엄마와 나누는 속깊은 대화가 주된 줄거리다. 이삼우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까지 맡았으며 고현주·김현수·김진홍씨 등이 출연한다. 12일 대구 극단 '처용'의 '해무'(광주주예회관 소극장)는 고기잡이 어선 '진진호'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만선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궁여지책으로 조선평을 배에 승선시키지만 그들이 집단 질식사하며 사건은 미궁에 빠져든다. 한편 전국연극제 기간중에는 다양한 '꿈꾸는 해바라기'(빛고를시민문화관)가 무대에 오른다. 심성일씨의 연출로 윤희철·윤미란·이현기·유지영씨 등이 출연한다. 서로 마음을

의지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한편 전국연극제 기간중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다. '아트버스'를 타면 공연장으로 갈 수 있으며 문예회관의 공연과 카페가 있는 보리밭 무대에서는 훌즈하임 목관 5중주단, 소프라노 유영민과 피아니스트 이상록씨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커피와 쿠키 등을 제공하하는 카페 테리아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현열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www.전국연극제.com 문의 062-225-5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30th Anniversary. Features a 30% OFF SALE, a list of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Seoul, Busan, etc.), and the website www.kjhr.com. Includes a logo of a knight on a horse.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Promotes 'Be natural Be delicious' and offers a 150+ menu items. Includes photos of food, a chef,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

Advertisement for U-square sauna. Features '유·스퀘어 사우나' with a 24-hour service, various amenities like a pool and interne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2nd floor location.